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2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광역화와 분권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시·도 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군의 선정이 필요한 시기에 1단계 선도전략산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2단계 광역선도산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충청권에서도 지역사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2단계 광역선도산업을 추진하며, 지역산업지원체계 전면 개편에 대응한 광역선도전략산업의 발굴을 위해 1단계 선도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자 한다.

충청권의 1단계 선도전략산업은 'New IT' 및 '의약바이오'로서 인재양성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선도산업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2011년 기준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매출 8,470억원, 수출 4.432억불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충청권은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본격화 등으로 명실상부 행정·과학의 중심, 교통·국방의 요충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은 그리 넉넉지 않고 고령화와 저출산, 고용불안과 농어촌 정주기반 취약, 그리고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충청권에 이전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시 U턴하여 수도권으로 되돌아간 데 따른 아픔 또한 함께 내재된 것이 작금의 충청권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허브」로서 충청권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2단계 광역선도산업 수립은 의미가 매우 크며, 충청권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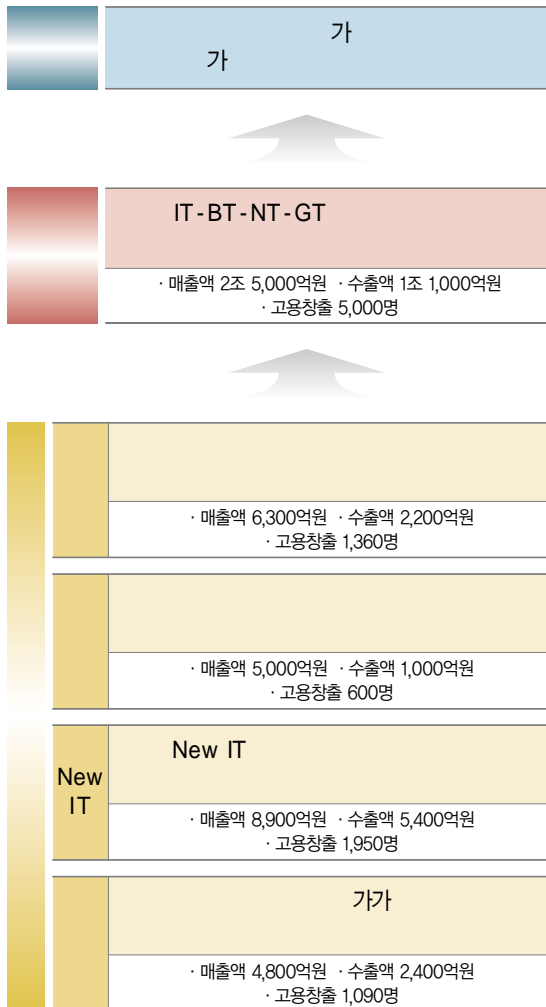


이근호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8114@korea.kr

대표 주력산업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New IT산업과 융합기계부품산업을 선정하였다. New IT산업에는 무선통신융합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부프로젝트를 그리고 융합기계부품산업에는 동력기반기계부품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강점인 의약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 등을 연계하여 디스플레이의 메카인 천안·탕정, 국가의료복합단지가 위치한 청주·오송·오창, 대덕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계한 거대 산업지구로 도약하고자 한다.

▶ 충청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비전·목표



2

충청권의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 선도산업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도전략산업의 기술개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1단계 선도산업 유망상품과 연계된 R&D 발굴 및 지원으로 충청광역사업의 성과확산을 유도하며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의 산업발전단계 및 제품의 시장단계 분석을 통해 육성 전략을 차별화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협력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우 제품고도화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장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선도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제품화 및 생산 능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IT-BT-NT-GT 기반의 선도산업 유망상품 고도화 추진', '매출액 2조 5,000억원, 수출액 1조 1,000억원, 고용창출 5,000명'을 목표로 2단계 광역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중앙정부사업, 충청권 광역사업, 시·도 추진 지역사업의 위계별 정합성, 연관성 분석을 통해 연계 가능성 및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충청권 광역사업 및 시·도 추진 지역사업의 R&D 및 비 R&D사업, 추진주체의 역할관계 분석 및 연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도전략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내외 연계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업, 광역사업의 성과제고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